References

2. F. R. Leavis, *D. H. Lawrence : Novelist,* (London, Chatto and Windus) 1964, pp 29-32.
3. *Ibid,* p. 66.
4. *Ibid,* pp 29-30
5. D. H. Lawrence : *Fantasia of the Unconscious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G.B. Penguin Book), 1986
6. *Ibid,* p 123.
7. Edward Nehls, *D. H. Lawrence, A Composite Biography Vol. 1* (Wisconsin, Univ. of Wisconsin Press), 1957, p. 500.
8. Text는 D. H. Lawrence : *Aaron's Rod* (G.B : Penguin Book, 1976) 을 사용하였으며 인용표시는 이하 (A/R page)로만 표시한다.
9. Anthony Beal, *D. H. Lawrence* (London ; Boyd, 1961) pp. 64-65.
10. R. P. Draper, *D. H. Lawrence ;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0), p.177.
11. J. M. Murry, *Son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31) p. 220.
12. Graham Hough, *Dark Sun* (London, Duckworth, 1956) p. 95.
13. John Worthen, *D. H. Lawrence and the Idea of the Novel*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9), p. 118.
14. *Ibid,* 11

어문연구 제7권 1997년 2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청해 책략

이효웅[1]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what kinds of listening strategies Korean EFL students have in the classroom. It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groups of students in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The students' listening strategies were collected through free style essays in the English classes. The study involved 182 male students and 63 female students from five different departments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analysis of data revealed several important things in the study of listening strategies. First, the student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use only cognitive strategies, but not to use metacognitive strategies reported in many other studies. Second, the high group of students reported to use a great number of different listening strategies from the low group, even though both of the groups were found to use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same strategies. Third, even within the same group of students,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each of the individual students. Fourth, the low group of students were found to use many different listening strategies, but some of them seemed to be ineffective strategies. Fifth, the listening strategies reported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noticeably different from those of ESL studi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listening strategies.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부교수

I. 서론

청해(listening comprehesion)는 최근에 와서야 외국어 학습내지 습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외국어 전공 학자들과 교육가들이 청해가 외국어 습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모국어나 외국어 습득에서 말하기 능력보다 듣기 능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학자들(Bacon, 1989; Brown, 1994a, 1994b; Byrnes, 1984; Dunkel, 1986, 1991a, 1991b; Dunkel, Henning & Chauldron, 1993; Herron & Seay, 1991; James, 1984; Lee, 1993a, 1993b; Long, 1989; Lund, 1991; Met, 1984; Olaofe, 1994; O'Malley, Chamot & Kupper, 1989; Richards, 1983; Rost, 1990; Rost & Ross, 1991; Rubin & Thompson, 1994; Seright, 1985; Stanley, 1978; Sheerin, 1987; Thompson & Rubin, 1996; Ur, 1984; Weissenreider, 1987)이 외국어 청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특히 Rubin(1994)은 외국어 습득의 청해에 대한 연구를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고찰을 하였다. 그녀는 이 고찰을 통해서 청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들이 믿고 있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인 혹은 특징들을 밝혀냈다: 첫째 특징은 교재의 특징(text characteristics)인데, 이에는 대화의 속도, 말의 중지 또는 망설임, 대화의 인지 수준, 강세와 리듬의 유형에 대한 인지,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 통사적 변형, 형태소적 복잡성, 어순, 담화의 표시어, 교재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둘째의 특징인 화자의 특징(interlocutors characteristics)은 남자와 여자, 초보자와 상급자 및 전문가와 비 전문가의 차이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셋째 특징은 과제의 특징(task characteristics)이다. 이 특징에는 선택 문제, 그림 선택 문제, 단어 쓰기 문제 및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 문제와 같은 과제의 종류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넷째 특징인 청취자의 특징(listener characteristics)은 외국어 숙달 정도, 기억력, 정의적 요소, 연령, 성, 모국

어의 학습 부진 및 배경 지식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처리 과정의 특징(process characteristics)은 상향, 하향 및 평행 처리 과정(bottom-up, top-down and parallel processing), 듣기 책략, 책략 훈련, 이해가능의 입력(comprehensible input) 등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청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Brown(1994)은 외국어 청해를 어렵게 만드는 여덟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국어를 청취할 때 긴 문장을 더 적은 단어의 집단으로 나누는 개념 단위화(clustering or chunking)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문어와는 다르게 구어에서는 잉여적 요소(redundancy)가 많은 것이 청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 셋째, 음운론적, 형태소적, 통사적 및 화용론적 축약된 형태(reduced forms)가 또한 청해를 어렵게 한다. 넷째, 언어 실천 변이(performance variables)가 외국어 학습자들의 청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문어체에 익숙한 외국어 학습자에게 구어(colloquial language)가 청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여섯째, 처음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에게 말의 속도(rate of delivery)가 또한 어려움을 준다. 일곱째,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의 강세, 리듬 및 억양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청해에 있어서 상호작용(interaction) 역시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외국어 학습자가 가지는 이러한 청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듣기 책략에 관한 것이다. Mendelsohn(1995)은 외국어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들을 기회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청해를 할 수 있는 청취 책략을 사용해서 외국어를 청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 청해를 도와 줄 수 있는 청해 기술 및 책략을 고찰하여 본다. 또한 본교 일학년 학생들이 영어 청해를 할 때 어떤

책략들을 사용하며 상위 집단이 사용하는 책략과 하위 집단이 사용하는 책략들이 어떻게 다른 가를 조사하여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영어 청해 수업이나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청해 기술 및 책략에 관한 연구

외국어 청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Murphy, 1985; O'Malley, Chamot & Kupper, 1989; Rost & Ross, 1991; Rubin, 1990)에 의하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는 듣기를 할 때 다수의 인지 책략(cognitive strategies)과 상위인지 책략(metacognitive strategies)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ubin(1987)에 의하면 인지 책략이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용이하도록 학습자가 사용하는 행위나 기술 및 행동이라고 했다. 이들 책략은 학습자가 직면하는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응답들이다. 이에 반하여 상위인지 책략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학습 방법의 계획, 조정, 평가 및 수정을 통해서 그들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관리 기술이다.

Brown(1994)에 의하면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자는 듣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의 할 일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듣기 책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주의를 다음과 같은 책략들에 기울이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한다.

1) 핵심적인 단어 찾기
2)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단서(nonverbal cues) 찾기
3) 구어 담화의 상황에서 화자의 목적을 예측하기

4) 정보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와 연관 지우기
5) 의미를 추측하기
6) 설명을 구하기
7) 전체적인 요점을 위해서 청취하기
8) 청해와 다양한 시험을 치루기 위한 책략들을 테스트하기

Ludgate(1984)는 실제 활동적인 청취 책략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학생들이 청취하는 상황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학생의 편에서는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의 순서는 어려운 관점에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문장과 문단 및 내용의 면에서는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인 상황으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세부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해에서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또 다른 실제 활동적인 책략은 진정한 교재, 일화, 라디오의 상업광고, 요리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결함 활동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각 책략은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진정한 교재를 듣고, 다음은 그 교재에 활발하게 관여를 하고, 마지막으로 동료 학생들과 상호 의사 소통적인 교환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것은 진정한 책략이라기보다는 청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urphy(1985)는 중급 수준의 대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상위 집단의 청취자들이 하위 집단의 청취자들 보다 개인화(personalizing)에 더 큰 강조를 두었으며, 또한 더 자주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아 묘사하며 예상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인지 책략과 상위인지 책략의 분석을 통해서 네 가지 유형의 책략 사용을 밝혀 냈었으며, 또한 더 유능한 청취자는 넓은 분포(wide distribution)라고 불리는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유능하지 못한 청취자는 교재에만 의지하는

책략(text heavy strategies)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의한 책략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들을 각기 다른 언어 숙달 정도에 연결시킬려는 시도는 책략 연구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O'Malley, Chamot & Kupper(1989)는 지각 처리과정(perceptual processing), 문장 구성요소의 분석(parsing), 및 이용(utilization)의 관점에서 유능한 청취자(effective listeners)와 유능하지 못한 청취자(ineffective listeners)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지각 처리과정에 있어서 유능한 청취자는 과제에 대한 그들의 주의를 멈출 때와 그들의 주의를 과제에 다시 되돌이키는 때를 의식하고 있으나 유능하지 못한 청취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구성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는 유능한 청취자는 억양과 정지를 듣고(listening for intonation and pauses), 또한 그들은 구와 문장을 듣는것(listening for phrases and sentences)으로 밝혀진 반면에 유능하지 못한 청취자는 각 단어를 듣고(listening for each word), 또 그들은 단어와 문장을 듣는 것(listening for words and sentences)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는 관련 짓기(elaboration), 자아 조정하기(self-monitoring) 및 추론하기(inferencing)의 책략이 가장 유용한 책략들로 드러났다. 이용(utilization)에 있어서는 유능한 청취자는 새로운 정보들을 세상에 대한 지식(world knowledge), 개인적인 지식(personal knowledge) 및 자아 질문(self-questioning)에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8명뿐이므로 대상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이 연구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Rost & Ross(1991)는 영어를 EFL로 배우는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듣기 책략의 종류와 외국어 숙달 정도에 따라 청해 책략이 어떻게 다른 가를 조사하여 보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세

가지의 큰 책략을 발견하였다. 첫째 책략은 전체 질문 책략(global questioning strategies)이다. 이 책략은 청자가 선행한 담화의 반복, 연습 및 단순화를 시도하는 전체적인 반복(global reprise) 책략과 듣는 사람이 담화의 설명이나 반복을 요청하지 않는 질문 불이행 책략인 담화를 계속하라는 신호(continuation signal)의 책략을 포함한다. 두 번째 책략은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는 책략(local questioning strategies)이다. 이 책략에는 선행 담화의 특정한 단어를 지칭하여 질문하는 어휘 반복(lexical reprise) 책략, 청자가 특별한 어휘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여 선행한 문장의 특별한 부분을 지칭하는 질문인 부분적인 반복(fragment reprise) 책략, 이전에 사용되었던 특별한 어휘나 용어에 관해서 질문하는 어휘 결함(lexical gap) 책략 및 청자가 앞에 나온 구의 특별한 단어에 관해서라기보다 선행한 문장에 있어서 위치에 관한 질문인 위치 반복(positional reprise) 책략을 포함한다. 마지막 책략은 추론적 책략(inferential strategies)이다. 이 책략에는 선행한 담화의 사실들에 관해서 특별한 질문을 함으로써 청자는 그 담화 구조 속에 담겨 있는 명제적인 이해를 지적하는 가설 시험하기(hypothesis testing) 책략과 듣는 사람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담화의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전진 추론(forward inference) 책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초보적인 외국어 학습자는 전체적인 질문의 형태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반면에 좀 더 외국어에 숙달되어 있는 학습자는 전진 추론이나 계속적인 신호와 같은 책략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Rubin & Thompson(1994)은 듣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 20개의 책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빨리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책략이다(People talk too fast).

1) 화자로 하여금 당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라.
2) 화자가 한 말을 반복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라.
3) 당신의 대화 상대자가 말을 더 천천히 하도록 요청을 하라.
4) 전달 내용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명확한 설명을 구하라.
5) 대화의 상대자가 한 말을 당신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바꾸어 말해 주도록 요청하라.
6) 질문문의 억양을 사용해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되풀이하여 주도록 요청하라.
7) 목소리의 억양과 어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8) 의문사에 주의를 집중하라.
9) 장소와 시제가 관련이 있는지를 가상하라.

둘째는 외국어로 된 TV나 영화를 볼 때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I am not getting anything out of foreign language TV and movies) 때 사용하는 책략이다.

1) 눈에 보이는 실마리를 이용하라.
2)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라.
3)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의 정보를 이용하라.
4) 각 부분의 유형을 확인하라.
5) 당신에게 친숙한 요소들을 청취하라.
6) 친숙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듣도록 하라.
7) 반복되는 단어나 구를 듣고 그리고 적어두라.
8) 숫자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워라.
9)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인식하는 것을 배워라.

마지막 책략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나 구를 듣을 때 청취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경향이 있을(I tend to stop listening when I hear an

unfamiliar word or phrase) 때 사용하는 책략이다.

1) 친숙한 요소를 듣는데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라.
2) 계속해서 청취하라(Keep listening).

Thompson & Rubin(1996)은 대학에서 노어를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책략의 가르침이 노어 청해를 향상시키는가를 조사 연구하였다. 그들이 가르친 책략들은 학습 계획을 짜는 것,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 학습을 조정하는 것, 사용된 책략들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상위 인지 책략과 내용을 예측하기, 아는 사실들을 듣기, 잉여적인 부분들을 듣기, 어조와 억양을 듣기, 단어와 구를 적어 두기와 같은 인지 책략이다. Thompson & Rubin(1996)은 이 연구에서 상위 인지 책략과 인지 책략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청해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 들은 책략의 사용이 진정한 노어 청해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 것을 밝혀냈다.

Wipf(1984)는 제2언어의 청해 지도를 위한 책략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청해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였다. 청해를 음의 구별(sound discrimination), 문법 구조(grammatical structures), 어휘(vocabulary), 강세와 억양(stress and intonation), 그리고 상황(context)으로 분류했다. 그는 복수의 신호(plural cues), 동사 시제의 신호 및 대명사 지칭어를 인식하기와 같은 문법적 신호(grammatical signals)의 책략을 가르친 것이 청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언어 습득에서는 지각하는 능력이 생산하는 능력보다 일관되게 앞서므로 후자의 부진이 전자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않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청해에 밀집 행진법(lock-step approach)의 책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Ⅲ. 청해 지도 기술

Brown(1994)은 학생들에게 외국어 청해를 지도할 때 초보자로부터 상급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청해를 교수하는 방법은 Brown(1994)에서 인용한 것을 밝혀둔다.

초보자를 위한 상향 청해 연습
(Bottom-up Exercises for Beginning-Level Listeners)

1) 문장에 있어서 억양곡선의 구별
(Discriminating between intonation contours in sentences)
상승이나 하강 억양을 가진 일련의 문장 유형을 듣게하라. 듣는 유형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의 난 앞에 체크 표시를 하게 하라.

2) 음소의 구별(Discirminating between phonemes)
단어의 쌍을 듣게하라. 어떤 쌍은 최종 자음이 다르고, 또 어떤 쌍은 같은 단어가 되도록 하라. 듣는 것에 따라 같음이나 다름에 동그라미를 하게하라.

3) 형태소적 의미를 위한 선택적인 청취
(Selective listening for morphological endings)
일련의 문장을 듣게하라. 문장의 동사가 -ed 어미를 가지면 yes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그러지 않으면 no에 표시하라.
일련의 문장을 듣게하라. 당신의 답지에는 세 동사의 형태가 있다. 당신이 듣는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의 형태에 동그라미를 하게하라.

4) 교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하기(Selecting details from the text)
당신이 들은 단어와 그림과 맞추기.
일기 예보를 듣게하라. 일련의 단어를 보고 당신이 들은 단어를 표시하라.
시간을 포함한 문장을 듣게하라. 세 개의 선택중에서 당신이 들은 시간을 표시하라.

광고를 듣게하라. 한 물건의 가격을 선택해서 가격표에 있는 금액을 적게하라.
전화기에 녹음된 일련의 메시지를 듣게하라. 전화를 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도표를 채우게 하라(이름, 숫자, 시간, 전달 내용).

5)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 듣기(Listening for normal sentence word order)
짧은 대화를 듣고 그 대화속에 빠져있는 단어를 메우게하라.

초보자를 위한 하향 청해 연습(Top-down Exercises)

6) 정서적 반응의 구별(Discriminating between emotional reactions)
일련의 발화문을 듣게하라. 당신이 들은 정서적 반응을 표사하는 난에 표시하게 하라(흥미, 행복, 놀람, 불행).

7) 문장의 요지를 파악하기(Getting the gist of a sentence)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듣고 정확한 그림 고르기

8) 주제 알아내기(Recognize the topic)
대화를 듣고 그 대화가 일어난 곳을 알게하라.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장소를 선택하게하라.
대화를 듣고 그림으로 되어있는 다수의 엽서를 보게하라. 엽서중에서 어느 것이 발송되었는지를 알게하라. 적당한 카드 밑에 인사 말을 쓰게하라.
대화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게 하라. 주제를 보여주는 그림을 선택하게 하라.

초보자를 위한 상호 작용적인 연습(Interactive Exercises)

9) 관련 어휘의 어미론적인 조직망을 세워라
(Build a semantic network of word associations).
단어를 듣고 머리속에 떠오르는 모든 관련된 단어들과 연관을 시켜보게 하라.

10) 친숙한 단어를 인식해서 그 것을 범주에 연관시켜라
(Recognize a familiar word and relate it to a category).

쇼핑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듣고 그것을 파는 상점과 단어들을 연결하게하라.

11) 지시문 따르기(following directions)

노선의 설명을 듣고 지도 위에 그 노선을 표시하게 하라.

중급자를 위한 상향 청해 연습
(Bottom-up Exercises for Intermediate-Level Listeners)

12) 빠른 대화 형태 인식하기(Recognizing fast speed forms)

강세 없는 기능어적인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문장들을 듣게하라. 세 단어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답지에 표시하게 하라(up, a, of).

13) 강세가 있는 음절 찾아내기(Finding the stressed syllables)

2음절이나 3음절의 단어들을 듣게하라. 그 것들에 단어의 강세를 표시하고 강세가 없는 음절의 발음을 예측하게 하라.

14) 축소된 음절을 가진 단어들을 인식하기
(Recognizing words with reduced syllables)

일련의 다음절의 단어들을 읽고 어느 음절 모음이 생략될 것인지를 예측케 하라.

빠른 속도로 읽는 단어들을 듣고 당신의 예측을 확인하라.

15) 단어들이 대화의 흐름속에 연결될 때 그 단어들을 인식하기
(Recognizing words as they are linked in the speech stream)

단어 사이에 자음과 모음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짧은 문장을 듣게하라. 당신의 답지에 연관성을 표시하라.

16) 대화의 흐름에서 관련 항목들을 인식하기
(Recognizing pertinent details in the speech stream)

일과 변경에 관하여 사장과 비서 사이의 짧은 대화를 듣게하라. 약속 달력을 사용하라. 변경된 약속을 지우고 새 약속을 적어넣게 하라.

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에 관한 안내 방송을 듣게하라. 당신의 정면에 있는 항공기의 안내 모형을 가지고 항공기 번호, 목적지, 출입구 번호 및 출발 시간을 기재하게 하라.

일련의 짧은 대화를 듣게하라. 듣기 전에 그 대화에 적용되는 질문문을 읽게하라.

듣는 동안에 가격이나 장소, 이름이나 숫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하라 (Where are the shoppers? How much is whole wheat bread?).
자동차 정비소의 주인과 손님사이에 일어나는 짧은 전화 대화를 듣게하라. 꼭 해야 할 자동차 수리를 열거한 도표를 채우게하라. 수리를 요하는 자동차의 부분과 이유와 대략의 비용을 표시하게 하라.

중급자를 위한 하향 청해 연습(Top-down Exercises)

17) 효과적인 청해 책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담화 구조를 분석하라
(Analyze discourse structure to suggest effective listening strategies).
음악의 사용, 핵심 단어의 반복 및 대화자의 수에 주의를 하면서 여섯 개의 라디오 상업 광고를 듣게하라. 이 기술이 청취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하라.

18) 화자나 주제를 찾기 위한 듣기(Listen to identify the speaker or topic)
일련의 라디오 상업 광고를 듣게하라. 당신의 답안지에 네 종류의 후원자나 상품중에서 선택을 하고 상업 광고와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게하라.

19) 주제와 동기를 평가하기 위한 청취(Listen to evaluate themes and motives)
일련의 라디오의 상업 광고를 듣게하라. 당신의 답지 위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용하는 네 가지의 가능한 동기가 열거되어 있다. 각 광고가 촉진시킬려고 한다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동기들을 표시하라: 현실로부터 도피, 가족의 안정, 거짓 호소, 성적 매력.

20) 주안점과 그 것을 지지하는 세부 항목을 찾기 찾기
(Finding main ideas and supporting details)
두 친구사이의 짧은 대화를 듣게하라. 당신의 답지 위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면들이 있다. 그 프로그램과 채널을 찾아 쓰게하라. 어느 화자가 어느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는지를 알아 맞추도록하라.

21) 추론하기(Making inferences)
일련의 문장을 듣게하라. 그 문장은 서술문일 수도 있고 의문문일 수도 있다. 각 문장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은 추론적인 질문에 답하게 하라: Where

might the speaker be? How might the speaker be feeling? What might the speaker be referring to?

일련의 문장을 듣게하라. 각 문장을 듣게 한 후에 그 문장에 대한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게 하라: 장소, 상황, 시간, 참여자.

중급자를 위한 상호 작용적인 연습(Interactive Exercises)

22) 말의 사용역과 목소리의 음조를 구별하기

(Discriminating between registers of speech and tones of voice)

일련의 문장을 듣게하라. 당신의 답지에 그 문장이 정중한 표현인지 정중하지 못한 표현인지를 표시하게 하라.

23) 구어에서 문법적 표시어가 빠진 것을 이식하라

(Recognize missing grammar markers in colloquial speech).

조동사와 주어가 생략된 일련의 짧은 질문문을 듣게하라. 생략된 단어를 메우기 위해서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라. (Have you) got some extra?

축약된 조동사와 주어를 가진 일련의 질문문을 듣고 본 동사의 형태를 점검함으로써 생략된 동사를 알아 맞추게 하라. (Zit come with anything else? Zit arriving on time?

24) 발화의 의미를 명백히하기 위해서 축약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라

(Use knowledge of reduced forms to clarify the meaning of an utterance).

축약된 형태를 가진 짧은 문장을 듣게하라.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게하라. 당신의 답지에 세 개의 선택 답지를 읽고 당신이 들은 문장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을 고르게하라(You can't be happy with that. a. Why can't you be happy? b. That will make you happy. c. I don't think you are happy).

25) 청취 예상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하라

(Use context to build listening expectations).

신문의 취업 광고란에 취업 자격을 설명하는 짧은 구직 광고를 읽게하라. 그런 종류의 직업에 중요한 추가적인 자격 요건들을 토의하도록 한다.

26) 당신의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라(Listen to confirm your expectations). 사람을 구하는 직업에 관한 짧은 라디오 광고를 듣게하라. 당신의 예상에 반대되는 그 직업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라.

27) 예상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하라. 생략된 단어를 알아내기 위해서 상향처리과정을 이용하라. 당신이 실제로 들은 것과 당신이 예상했던 것을 비교하라(Use context to build expectations. Use bottom-up processing to recognize missing words. Compare you predictions to what you actually heard).

생략된 단어를 가진 어떤 전화 메시지를 읽게하라. 당신이 왜 듣는 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생략되었는가를 알게하라. 빈란에 넣을 정보를 듣게 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예측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책략을 사용했는지를 학반에서 논의하게 하라.

28) 교재의 더 완전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감각적인 자료와 문화적인 배경지식을 사용하라(Use incomplete sensory data and cultural background information to construct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a text).

전화 대화의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게하라.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대화에 대한 제목을 붙이게 하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시작을 듣게하라. 그리고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그들의 연령, 성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게 하라. 또 하루의 시간, 장소, 온도, 계절, 그리고 주제를 추측하게 하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측하기 위해서 문장 중에서 고르게 하라.

상급자를 위한 상향 청해 연습
(Bottom-up Exercises for Advanced-Level Listeners)

29)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장의 강세와 음량의 특징을 이용하라(Use features of sentence stress and volume to identify important information for note taking).

많은 문장을 듣고 의미 내용어를 찾아내게 하라. 이 내용어를 큰 강세를 가지고 읽도록 하라. 노트하기 위해서 이 내용어를 쓰도록 하라.

30) 강의교재에서 문장 수준의 특징을 인식하라

(Become aware of sentence-level features in lecture text).

교재의 원문을 읽는 동안에 강의 일부를 듣게하라. 불완전한 문장, 중지 및 대화의 연결어와 같은 것에 주의를 하게하라.

31) 강의 교재의 조직적인 신호를 인식하라

(Become aware of organizational cues in lecture text).

강의의 원문을 보고 주안점을 열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신호어를 표시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강의의 일부를 듣고 조직적인 신호를 찾아내게 하라.

32) 정의를 위한 어미적 초분절적인 표시어를 인식하라

(Become aware of lexical and suprasegmental marker for definitions).

정의를 알려주는 일련의 어미적 신호를 읽게하라. 수사적 질문 같은 화자의 의도적 신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또 동격어로 사용된 특별한 억양의 유형과 중지의 유형을 청취하게 하라.

새로운 용어와 문맥에서 그들의 정의를 가진 짧은 강의의 일부를 듣게하라. 단어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미적 억양적 신호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게 하라.

33) 정보의 구체적인 점을 확인하게 하라(Identify specific points of information).

주요한 범주가 주어졌지만 구체적인 예가 빈란으로 남겨져 있는 강의의 최소한의 대의를 읽게하라. 그 강의를 듣고 빈란에 들어 갈 정보를 찾게하라.

상급자를 위한 하향 청해 연습(Top-down exercises)

34) 그 강의의 초점과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강의의 도입을 이용하라

(Use the introduction to the lecture to predict its focus and direction).

강의의 도입 부분을 듣게하라. 그 다음 당신의 답지에 있는 많은 제목들을 읽게 하고 그 강의가 논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제목을 고르게하라.

35) 다음 부분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강의의 원문을 이용하게 하라

(Use the lecture transcript to predict the content of the next section).

강의 원문의 일부를 읽게하라. 접속점에서 읽기를 멈추고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게하라.

36) 강의 부분의 대의를 찾아라(Find the main idea of a lecture segment).

통계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강의의 일부를 듣게하라. 들으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는 세 개의 도표를 보게하고 강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도표를 고르게하라.

상급자를 위한 상호 작용적 청해 연습(Interactive Exercises)

37) 내용에 관한 정확한 예측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세부 항목들을 이용하라(Use incoming details to determine the accuracy of predictions about content).

강의에서 당신이 듣기를 기대하는 얼마의 주안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서론의 문장들을 듣게하라. 그리고 나서 강의의 원문을 듣게하고 당신이 예상했던 주안점에 대해서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보게 하라. 만약 강의자가 당신의 예상대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라.

38) 강의의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분석에 의해서 그 강의의 주안점을 결정하라(Determine the main ideas of a section of a lecture by analysis of the details in that section).

강의의 일부를 듣고 중요한 세부 항목들을 적어두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의 주안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연결 시켜라. 일련의 가능한 통제할 수 있는 생각들로부터 고르게하라.

39) 문장의 수준에서 평가적인 문장을 나타내는 생각들을 확인함으로써 추론을 하게 하라(Make inferences by identifying ideas on the sentence level that lead to evaluative statements).

문장을 듣고 중요한 단어들을 적어두게 하라. 그 문장으로부터 더 많은 어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알게하라. 원래의 문장에 있었던 단어들을 지적하게 하라. 그 추론에 단서를 제공하는 원래의 문장에 있었던 단어들을 지적하게 하라.

40) 빠진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교재에 관한 지식과 강의 내용을 활용하라(Use knowledge of the text and the lecture content to fill in missing information).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의의 일부를 듣게하라. 그리고 나서 단어들이 생략된 문장을 듣게하라. 교재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빠진 정보를 채우게하라. 마지막으로 강의의 전부분을 들음으로써 당신의 이해를 점검하라.

41) 강의자의 잘못된 진술을 발견하고 그가 말할려고 의도하는 생각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교재와 강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라(Use knowledge of the text and the lecture content to discover the lecturer's misstatements and to supply the ideas that he meant to say).

부정확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강의의 일부를 듣게하라. 그 부정확한 용어와 강의자가 사용해야만 했던 용어를 쓰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어떤 단서가 당신이 그 잘못된 용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는가를 지적하게 하라.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한 청해 기술은 청해를 지도하는 교사나 듣기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Ⅳ. 청취 기술 분류

Richards(1983)는 욕구 분석, 담화 분석 및 관련 연구를 통해서 청취하는 기술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청취 기술 즉 회화 청취를 위한 미시적 기술(micro-skills for conversational listening)과 학문적 청취을 위한 미시적 기술(micro-skills for academic listening)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taxonomy)는 지금까지 청취 분류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회화 청취를 위한 미시적 기술
(Micro-Skills for Conversational Listening)

1) 짧은 기간 동안에 길이가 다른 언어의 개념 단위를 간직하는 능력
2) 목표 언어의 변별음을 구별하는 능력
3) 단어들의 강세 유형을 인식하는 능력
4) 영어의 율동적인 구조를 인식하는 능력
5) 발화의 정보 구조를 알리는 강세와 억양의 기능들을 인식하는 능력
6) 강세를 받는 위치나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능력
7) 단어의 축약된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
8) 단어의 경계들을 구분하는 능력
9) 목표 언어에 있어서 전형적인 어순의 유형을 인식하는 능력
10) 핵심적인 회화의 주제에 사용된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
11) 핵심적인 단어를 발견하는 능력(예: 대화의 주제나 전제를 나타내는 단어들)
12) 단어들이 놓여있는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
13) 문법적 단어의 부류를 인식하는 능력
14) 주요한 통사적 유형과 구조를 인식하는 능력
15) 구어의 담화에 있어서 결합성 구조를 인식하는 능력
16) 문법적 단위와 문장의 생략된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
17) 문장 구성 성분을 알아내는 능력
18) 주요한 구성 성분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19) 상의한 문법적 형태나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는 의미를 알아내는 능력
(예: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20) 상황, 참여자 및 목표에 의하여 발화들의 의사 소통적 기능들을 인식하는 능력
21) 상황, 참여자, 목표 및 진행 절차를 재 구성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22) 목적, 목표, 장면 및 진행 절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제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
23) 묘사한 사건으로부터 결과들을 예측하는 능력
24) 사건들의 연결과 관련을 추론하는 능력
25)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

26)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축된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27) 두 명이상의 화자가 진행하는 담화의 주제나 일관성의 구조를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28) 담화에 있어서 일관성의 표시어를 인식하고 대의, 대의를 지지하는 것, 주어진 정보, 새로운 정보, 일반화 및 예시를 찾아내는 능력
29) 상의한 속도로 담화를 처리하는 능력
30) 중지, 오류 및 수정을 포함한 말을 처리하는 능력
31) 의미를 찾기 위해서 표정이나 부차 언어적이거나 다른 실마리를 활용하는 능력
32) 다른 종류의 청취자의 목적이나 목표에 청취 책략을 맞추는 능력
33) 음성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이해나 혹은 이해의 부족을 전달하는 능력

2. 학문적 청취를 위한 미시적 기술 (Micro-Skills for Academic Listening)

1) 강의의 목적과 범위를 알아내는 능력
2) 강의의 주제를 알아내고 주제의 전개를 따라가는 능력
3) 담화내에 있는 단위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
(예: 주안점들, 일반화, 가설, 대의를 지지하는 것, 예문)
4) 강의의 구조를 알리는 담화 표시어의 역할을 인식하는 능력
(예: 접속사, 부사, 대화를 이끌어내는 말, 상투어)
5)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예: 원인, 결과, 결론)
6) 제목이나 주제에 관련된 핵심적인 어휘 항목을 인식하는 능력
7)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
8) 일관성의 표시어를 인식하는 능력
9) 정보 구조를 알리기 위한 억양의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
10) 주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탐지해내는 능력
11) 강의의 다른 모형을 따라가는 능력: 구어, 청각, 시청각으로 하는 강의.
12) 강세와 속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따라가는 능력
13) 상의한 형태의 강의와 친숙하기(격식 있는, 회화적인, 읽기, 계획에 없었던

강의)

14) 문어나 구어의 각각 다른 언어 사용역에 친숙하기

15) 농담, 이탈, 우회와 같은 부적절한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16) 강조와 태도의 표시어로서 비언어적인 단서의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

17) 교실 관행에 대한 지식(예: 교대하기, 명백히 하기위한 요청)

18) 교수나 학습 과제를 인식하는 능력(예: 경고, 제의, 추천, 충고, 지시)

위에서 Richards(1983)가 제시한 회화적 · 학구적 · 미시적 청취 기술은 청해 교재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청해를 지도하는 사람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여기에서 소개를 한 것이다.

또한 Lund(1990)도 외국어 청해를 지도하는 분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청해 분류의 핵심적인 요인은 청취자의 기능과 청취자의 응답이라고 했다. 그녀는 청취자의 기능을 여섯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었다. 첫째 기능은 확인(identification) 기능이다. 여기에는 친숙한 단어를 인식하기, 개인적인 이름이나 장소 이름, 혹은 음식의 이름과 같은 단어들의 범주 찾기, 최소 음소 대립어나 억양의 유형을 구별하기, 단수나 복수와 현재나 과거 시제를 구별하기 및 라디오 광고에서 상품을 묘사하는 모든 형용사들을 쓰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둘째 기능은 전달하는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맞추거나 준비하는 지향성(orientation)의 기능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뉴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과 그 뉴스에 운동에 관한 뉴스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남자와 여자가 논쟁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기, 대화가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사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및 라디오 광고에서 선전 광고, 뉴스 방송, 라디오 연속극, 대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재의 유형을 결정하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셋째 기능은 전달 내용의 실제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주안점에 대한 이해(main idea comprehension)의 기능이다. 여기에는 일기 예보가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를 가르키는지를 결정하기,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를 여행담으로부터 결정하기, 대담 프로그램에서 전화건 사람의 문제와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해결책을 확인하기, 정확한 위치에 도착할 만큼 지시 사항을 잘 이해하기, 강의의 주안점을 요약하고 기본적인 대의를 완성할 만큼 강의를 잘 이해하기 및 라디오 광고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상품이 선전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넷째 기능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는 세부항목 이해(detail comprehension) 기능이다. 여기에는 일련의 정확한 지시문 따르기, Berlin행 열차들의 출발 시간이나 플랫폼의 번호를 파악하기, 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를 정비공이 설명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내일 비가 올 것인지를 알아내기 및 라디오 광고에서 그 상품에 대한 세가지 판매 강조점을 찾아내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섯째 기능은 전달 내용의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완전이해(full comprehension) 기능이다. 여기에는 지극히 적합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을 이해하기, 세부적인 항목들을 기록하고 세부적으로 요약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이해하기, 속보에 관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뉴스 속보를 이해하기, 몇 개의 선택적인 대화의 끝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선택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및 라디오 광고에서 산업의 상금에 대한 최상의 광고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청취 기능은 청취자의 주요한 목적이 전달 내용을 꼭 같거나 다르게 재생산하는 것인 복사(replication) 기능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수업중에 실시되는 받아쓰기, 중요한 전화 내용을 적어두기, 번역자의 역할 놀이하기(예: 한 경찰관이 그 언어를 하지 못하는 친구를 체포하기)와 라디오 광고에서 광고되고 있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쓰기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서 Lund(1990)는 청취자의 응답을 아홉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는 언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doing)이다. 대부분의 TPR 활동들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청취자의 응답은 선택하는 것(choosing)이다. 그림이나 도표, 대상 물건들 그리고 교재 등의 여러 가지 선택들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셋째 응답은 전이 하는 것(transferring)이다. 한 형태의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형태로 전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넷째 응답은 대답하는 것(answering)이다. 교재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요구되는 정보에 대답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청취자가 축약하는(condensing) 응답이다. 요약하거나 노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여섯째 응답은 확장하는 것(extending)이다. 이야기의 끝을 제공하거나 변경하며, 끝이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곱째는 복사하기(replicating) 응답이다. 받아쓰기, 번역하기, 구두로 반복하기 등이 이 응답에 해당된다. 여덟째 응답은 모형을 본뜨는 것(modeling)이다. 교재는 모방하기 위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응답은 회화하는 것(conversing)이다. 여기에서는 청취자가 얼굴을 대면해서 회화하는 활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

위에서 Lund(1990)가 제시한 여섯 가지 청취자의 기능과 아홉 가지 청취자의 응답의 분류는 Brown(1994)과 Richards(1983)의 청해 기술 분류와 더불어 청해 교수와 학습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어진다.

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영어회화 II와 영어청해 II를 수강하고 있는 일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1개 학부, 3개 학과

에 재학중인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전체 학생수는 245명이다. 이 중에서 남학생이 182명이고 여학생이 63명이다. 연구 대상자중에서 영어과 학생만이 영어청해 II를 수강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모두 영어회화 II를 수강한 학생들이다. 각 과목의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어학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 연구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1996년 2학기 영어회화 II 수업시간이나 영어청해 II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의 대학생들중에서 영어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영어 듣기를 할 때 각각 어떤 책략을 사용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청해 책략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유 작문 형식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책략들을 실제로 적어보도록 하였다. 사실은 쓰기전에 눈을 감고 각자가 영어 듣기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가급적 깊이 회고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적어보도록 요청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소수의 학생은 단지 한 개만의 책략을 적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3개 이상의 책략들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영어 성취도의 구분

영어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기 위해서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하지않고 학년말 성적에 의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저자가 일년동안 이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학생들의 실력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널리 공인된 청해 테스트(listening comprehension test)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신뢰성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Ⅵ. 결과 및 토의

1. 상위 집단이 사용하는 청해 책략

다음은 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할 때 사용한다고 대답한 청해 책략들이다.

1) 대화를 들을 때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 문장 및 숙어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2) 들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풀이 한다.
3) 문제를 풀때는 여백에 요점을 적는다.
4) 비디오를 볼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마음 속으로 먼저 예측해서 말하여 본다.
5) 실용적인 구문을 반복해서 외워둔다.
6) 될 수 있으면 책을 보지 않는다.
7)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듣기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8) 책을 먼저 보고 발음했던 것과 수업 시간에 외국인의 실제 발음을 비교해 본다.
9) 팝송을 많이 듣는다.
10) 테이프를 들을 때는 그 문장이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다.
11) 테이프를 들을 때는 책을 보지 않고 반복해서 들은 후에 나중에 책과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더 들어 본다.
12) 들을 때는 지형, 이름, 시간 같은 특정한 것 즉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었다.
13) 먼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14) 자신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도록 교정하려고 노력한다.

15) 영어를 들으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 말이라는 생각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지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16) 비디오를 보면서 상황에 따른 행동과 억양에 주의해서 들었다.
17) 교재에서 모르는 단어를 미리 공부한 후 수업시간에 청취하였는데, 이 방법이 청취력 향상에는 좋지 않았다.
18) 먼저 듣기 전에 문제라든지, 그림 등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대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
19) 한 단어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느낌과 상황 파악의 위주로 듣는다.
20)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마음으로 듣는다.
21) 듣고 난 후에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 문장을 외웠다.
22) 영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23) 수업 시간에 졸지않고 열심히 들었다.
24) 집중해서 들을려고 노력했다.
25) 큰 소리로 따라하니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졌다.
26) 문장 전체를 듣기는 어려우므로 아는 단어를 주의해서 듣는다.
27) 모두를 다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억양이나 발음이 강한 곳을 집중해서 들었다.
28) 대화중에 화자가 말할 때 속으로 따라서 말했다.
29) 생각하면서 듣는다.
30) 그 대화의 key word를 정확히 듣고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31) 큰 소리로 들으니까 더 잘 들렸다.
32) 문장 전체에서 동사에 가장 주의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다.
33) 테이프에 나오는 말을 직접 몇번씩 말해 봄으로써 문장에 익숙해 졌다.
34) 단문이나 의문문의 경우는 처음과 끝을 아주 세밀하고 주의깊게 듣는다.
35) 들을 때 눈을 감는 것이 정신 집중에 좋다.
36)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듣는다.
37) 내가 발음하는 것과 외국인이 발음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나 특별히 나의 발음과 그들의 발음이 다른 부분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다.

2. 하위 집단이 사용하는 청해 책략

다음은 하위 집단의 학생들이 영어 청해를 할 때 사용한다고 대답한 책략들이다.

1)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면서 듣는다.
2) 수업 전에 그 날 배울 것을 미리 단어를 찾아 가며 읽고 나서 듣게 되면 잘 이해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었다.
3) 영어를 들어면서 책을 보고 발음을 비슷하게 할려고 노력하니 발음과 듣기 능력의 향상이 되었다.
4) 영어를 두려워 하지 말자.
5) 듣기를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6) 자세히 들으면서 아는 단어가 나오면 대충 문맥을 유추하여 본다.
7)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따라서 해 보기도 하는 것이 좋다.
8) 영어 듣기를 잘 하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발음을 구사 할 줄 알아야 한다.
9) 일단 무턱대고 암기하였다.
10) 테이프 속도 조절이 가능한 카세트를 이용하여 미국인의 음성을 느리고 빠르게 반복해서 들었다.
11) 먼저 문장을 듣고, 그 다음 문장을 살펴 본 다음 다시 듣는다.
12) 문장 전부를 다 듣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않고 핵심적인 몇 단어들만을 확실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했다.
13) 수업시간에 정말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4) 눈을 똑바로 뜨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들었다. 나는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잡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이다.
15) 어느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외운다.
16)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가 아는 단어 위주로 듣는다.
17) 고개를 들고 들으면 아무래도 정신 집중이 안 된다.

18) 장문의 주제를 찾으려면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주의해서 듣는다.
19) 간단한 생활 회화의 어구를 자주 사용한다.
20) 지문을 보지 않고 여러번 들으려고 했다.
21) 영어 듣기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팝송이나 편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듣는다.
22) 좋은 교재니 뭐니 필요없이 열심히 듣고 말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23) 의문문의 의문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다.
24) 일단 듣기를 할 때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
25)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26) 듣기를 할 때 처음에는 단어만을 듣고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한다.
27) 들을 때 맨처음 나오는 문장에 신경을 써서 듣는다.
28) 문장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듣는다.
29) 핵심 단어를 들어서 문제 상황에 맞춘다.
30) 짧은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
31) 긴 문장에서는 문장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32) 팝송을 많이 듣는다.
33) 받아 쓰기를 할 때는 눈을 감고 들으면 좀 더 잘 들린다.
34) 미리 배울 부분의 문제를 읽어 본 후에 본문을 듣는다.
35) 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잘 안들리던 부분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
36) 영어로 생각하기 전에 항상 한국어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생각한 후 거기에 맞는 영어 문장을 선택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37) 듣지 못했던 부분을 체크 하였다가 그 후에 반복 청취했다.
38) 수업전에 책을 미리 대충 읽어 본다.
39) 중요한 단어는 한쪽에 적는다.
40) 그냥 단어를 많이 알아두고 그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어보면 듣기에 별 지장이 없었다.
41) 수업에 열중하고 단어와 문맥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쓴다.

위에서 제시한 상위 집단의 학생들과 하위 집단의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책략들로부터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학생들은 상하위 집단 모두 Thompson & Rubin(1996)이 밝힌 청해를 위한 계획하기(planning), 목표 정하기(defining goals), 조정하기(monitoring), 평가하기(evaluating) 등과 같은 상위인지책략(metacognitive strategies)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반면에 두 집단이 다 같이 내용을 예측하기(비디오를 볼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먼저 예측해서 말하여 본다. 먼저 듣기 전에 문제라든지, 그림 등을 유심히 살펴 본 후에 대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면서 듣는다.), 아는 사실을 듣기(문장 전체를 듣기는 어려우므로 아는 단어를 주의해서 듣는다.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가 아는 단어를 집중해서 듣는다.), 중요한 단어를 적어두기(문제를 풀 때는 여백에 요점을 적는다. 중요한 단어는 한쪽에 적는다), 핵심적인 단어를 듣고 문맥을 파악하기(key word를 정확히 듣고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문장 전부를 다 듣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핵심적인 몇 단어만을 확실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했다. 들을 때에는 지형, 이름, 시간과 같은 특정한 것 즉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었다.)와 같은 인지책략(cognitive strategies)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둘째, 많은 수의 똑 같은 책략들을 상위 집단의 학생들과 하위 집단의 학생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상하위 각각의 집단내에서도 학생들 개인에 따라서 책략들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듣기를 할 때에는 듣기전에 한번 읽어 본 것이 청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반면에 다른 학생은 듣기전에 보지 않은 것이 청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 어떤 응답자는 들을 때 눈을 감는 것이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것에 반하여 다른 학생은 눈을 똑바로 뜨고 듣는 것이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각 집단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다 같이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책략은 다음과 같

다: 실용적인 구문은 반복해서 외워 둔다. 팝송을 많이 듣는다. 책을 먼저 보고 발음했던 것과 수업 시간에 외국인의 실제 발음을 비교해 본다. 문장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듣는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고 따라 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 상위 집단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책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들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풀이 한다. 자신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도록 교정하려고 노력한다. 모두를 다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억양이나 발음이 강한 곳을 집중해서 들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마음으로 듣는다. 단문이나 의문문의 경우는 처음과 끝을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듣는다. 여섯째, 하위 집단이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책략은 아래와 같다: 일단 무턱대고 암기한다. 영어로 생각하기 전에 항상 한국어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생각한 후에 거기에 맞는 영어 문장을 선택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듣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단어만을 듣고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한다. 수업에 열중하고 단어와 문맥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쓴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생들은 Brown(1994), O'Malley, Chamot & Kupper(1989), Rost & Ross(1991), Rubin & Thompson(1994), Thompson & Rubin(1996)의 연구에서 발견된 책략과 같은 책략을 사용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책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 결론 및 제의

본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 일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듣기를 할 때 어떤 책략들을 사용하는 가를 조사하여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학생중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사용하는 책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가에 대해서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항

들을 요약하고 동시에 이들이 영어 청해의 교수나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학생들은 O'Malley, Chamot, & Kupper(1989)와 Thompson & Rubin(1996)의 연구에서 드러난 상위 인지책략과 인지책략의 두 책략 중에서 상위 인지책략과 관련있다고 밝혀진 계획하기, 목표 정하기, 조정하기 및 평가하기와 같은 책략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는 인지책략뿐만 아니라 상위 인지책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어 청해 수업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위 인지책략과 그들의 효용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은 이 책략을 청해 학습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다. 둘째,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략들과 하위 집단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략들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상위 집단은 대화 내용의 예측이나 자기의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과 꾸준히 비교해 가면서 자기의 발음을 수정하며, 또 문장에서 억양이나 발음이 강한 곳을 집중해서 듣는 것과 같은 책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하위 집단의 학생은 일단 무턱대고 암기하거나 단어나 문맥의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거나, 또는 한국어로 먼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생각하고 난 후에 영어 문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책략을 사용한다고 대답하여 두 집단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책략보다 더 좋은 책략이 있는 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책략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셋째, 상하위 각각의 집단내서도 학생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또는 정반대의 책략(하위 집단내에서, A학생: 눈을 똑 바로 뜨고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들었다. 나는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잡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B학생: 고개를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 집중이 안 된다.)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청

해 책략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와 같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몇 개의 책략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다 같이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의 책략 사용에 같은 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같은 책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하위 집단의 학생들도 상위 집단의 학생들에게 못지않게 많은 수의 책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하위 집단의 학생들은 효과적이지 못한 청해 책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은 또한 효과적인 책략들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결과는 Vann & Abraham(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책략들중에는 선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책략들과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상당한 수의 책략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행한 대부분의 연구가 ESL환경에서 이루어져서 한국과 같은 EFL환경과는 거리가 있는데서 오는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EFL환경에 적합한 청해 책략을 가급적 많이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학생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많은 책략들을 발견하고 어느 책략이 어떤 학생에게 적합하며 그 책략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 외국어 청해 능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 문헌

Bacon, S. M. (1989). Listening for real in the foreign-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22, 543-55.

Brown, H. D. (1994a).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Brown, H. D. (1994b).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Byrnes, H. (1984). The role of listening comprehension: A theoretical base. Foreign Language Annals, 17, 31-29.

Dunkel, P. A. (1986).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in L2: Theoretical principles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4, 459-73. listening comprehension proficiency: An ESL prototype development effor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5, 64-75.

Dunkel, P. A. (1991b). Listening in the native and second/foreign language. Toward an integra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TESOL Quarterly, 25, 431-57.

Dunkel, P., Henning, G., & Chaudron, C. (1993). The assessment of a listening comprehension construct: A tentative model for test specifications and developmen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 180-91.

Herron, C., & Seay, I. (1991). The effect of authentic aural texts on student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24, 487-95.

James, C. J. (1984). Are you listening? The practical components of

listening comprehension. Foreign Language Annals, 17, 129-33.

Lee, H. W. (1993a). Factors affe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1, 41-57.

Lee. H. W. (1993b). The effect of scripted and nonscripted textbooks on listening comprehens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Language and Literature Research, 3, 59-84.

Long, D. R. (1989).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A schema-theoretic perspectiv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 32-40.

Ludgate, B. G. (1984). Suggested strategies for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7, 39-42.

Lund. R. J. (1990). A taxonomy for teach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Foreign Language Annals, 23, 105-15.

Mendelsohn, D. (1995). Applying learning strategies in the second/foreign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in Mendelsohn, D., & Rubin, J. (Eds.), A guid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San Diego: Dominie Press.

Met. M. (1984).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young second language learner. Foreign Language Annals, 17, 519-23.

Murphy, J. M. (1985). An investigation into the listening strategies of ESL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19th Annual TESOL Convention, New York, NY.

Olaofe, A. (199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large classes. Forum, 32, 10-13.

O'Malley, J. M., Chamot, A. U., & Kupper, L. (198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0, 418-37.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 219-40.

Rost, M.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New York: Longman.

Rost, M., & Ross, S. (1991). Learner use of strategies in interaction: Typology and teachability. Language Learning, 41, 235-73.

Rubin, J., & Thompson, I. (1994).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2nd edition. Heinle & Heinle Publishers.

Seright, L. (1985). Age and aural comprehension achievement in Francophone adults. TESOL Quarterly, 19, 455-73.

Sheerin, S. (1978). Listening comprehension: Teaching or testing? ELT Journal, 41, 126-31.

Stanley, J. A. (1978).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An interim report on a project to use uncontrolled language data as a source material for training foreign students i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12, 285-95.

Thompson, I., & Rubin, J. (1996). Can strategy instruction improve listening comprehenion? Foreign Language Annals, 29, 331-42.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sity Press.

Vann, R. J., & Abraham, R. G. (1990). Strategies of unsuccessful language learners. TESOL Quarterly, 24, 177-98.

Weissenreider, M. (1987). Listening to the news in Spanis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1, 18-27.

Wipf, J. A. (1984). Strategies for teach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Foreign Language Annals, 17, 345-48.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어문연구 제7권 1997년 2월

『潮騷』의 自然觀에 關한 一考察*

-三島由紀夫 作品을 중심으로-

張 晋 洙**

<차 례>

Ⅰ. 序 論
Ⅱ. 本 論
1. 자연환경
1) 시간적 자연
2) 공간적 자연
2. 자연의 표상
1) 기상 표상
2) 동식물의 표상
3. 자연관
1) 대자연
2) 인간과 환경
Ⅲ. 結 論
참고문헌

Ⅰ. 序 論

本 稿는 三島由紀夫의 작품『潮騷』속에 나타난 日本의 海洋 自然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論旨로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金閣寺』에 나타난 山寺의 自然觀도 살펴보고 관찰하고자 한다. 자연관이란 자연에 대한 관념이나 견해를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은 거대한 천체의 별들로부터 시작하여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 등 유형, 무

* 本 論文은 1995년도 한국해양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揭載하기로 하고, 전반부는 어문연구 제6권(1996. 2)에 발표하였으며, 本 稿에서는 전후반부 전부를 揭載함.

** 韓國海洋大學校 副敎授 日文學